

류비단

류비단은 오텐몬을 지나 안뜰 안쪽의 약 절반가량이 다른 구역보다 높게 형성된 부분을 지칭합니다. 류비단 방면으로 정면 안쪽에 있는 큰 샤덴(신체를 모시는 건물)이 다이고쿠덴이며,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밧코로와 소류로입니다. 류비단의 단차 부분은 정밀한 금속 세공과 장식으로 꾸며진 빨간 난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헤이안쿄의 정전(正殿)이었던 조도인에서 다이고쿠덴은 정무를 관장하고 중요한 의례를 치르기 위한 특별한 장소였으며, 천황의 옥좌 또한 이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옛날에는 높은 품계를 부여받은 귀족만이 류비단에 올라 다이고쿠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류비단을 올라가면 밧코로와 신엔의 입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